



## '무왕'조의 찬술의도와 서동요의 성격

---

저자 (Authors)	이완형
출처 (Source)	<a href="#">어문학</a> , 2001.10, 329-352(24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a> , 2001.10, 329-352(2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어문학회</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34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340</a>
APA Style	이완형 (2001). '무왕'조의 찬술의도와 서동요의 성격. 어문학, 329-35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0 10:4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武王’조의 찬술의도와 서동요의 성격

이 완 형\*

### 〈목 차〉

- |                        |                 |
|------------------------|-----------------|
| I. 서 론                 | 1. 가창상황과 노래의 성격 |
| II. 무왕조 서사문맥의 이해       | 2. 계약적 希願謠      |
| 1 무왕조의 수록동인과 서동의 정체    | IV. 결 론         |
| 2 서사문맥과 노래의 친연성        | 참고문헌            |
| III. 서동요의 생성기반과 노래의 기능 |                 |

### I. 서 론

<서동요>가 수록된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武王’條는 마를 파는 아이가 백제왕에 등극하고 있는데다가 미륵사(왕흥사) 창사연기설화까지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 왔다. 그리하여 이 조목의 기록을 서동 관련 이야기와 창사연기설화로 나누어 거론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 설화로 이해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하여 ‘무왕’조 기록을 역사적 관점과 설화적 관점으로 대별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즉 역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서동의 실체 규명에 들어가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며, 설화적 관점에서 다루려는 입장 역시 그 생성기반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sup>1)</sup>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들의 문제점 또한 어느 정도 다루어진

\* 배재대학교 교수

- 1) 이에 대한 검토는 최용수,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달』 20, 1995, pp. 290-296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상태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 찬술의도와 '무왕'조 서사문맥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동요>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서동요>를 '무왕'조 전체 서사문맥 속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일연의 「기이」편 찬술의도와 관련하여 <서동요>의 실체와 서동의 청체에 대해 밝혀 보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서동요> 논의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이 노래의 생성기반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II. '무왕'조 서사문맥의 이해

### 1. '무왕'조의 수록 동인과 서동의 정체

<서동요>의 실체를 밝히려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것이 『삼국유사』 「기이」편에 수록된 동인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대부분 史實的·설화적 측면에서 검토되거나 아니면 '무왕'조의 전체 문맥과는 무관하게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동요>의 실체를 확인하고 '무왕'조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견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전설이라는 점이다.<sup>3)</sup> 미친한 출신인 바보 온달이 부와 재능과 권력을 가진 조력자 평강공주를 만나 부마가 되고 크게 출세한다는 점에서 서동설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연은 '무왕'조 기록보다 한결 세련된 영웅적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온달 전설을 왜 『삼국유사』에 수록하지 않았을까. 이를 확인하

2)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최근에는 임기중(『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에 의해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3) 『삼국사기』 권 제 45, 「열전」 제 5, '온달'조 참조.

는 방법 역시 일연의 찬술의도를 정확히 읽어 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일연은 『고본』과 『삼국사기』를 이미 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온달전설을 모를 리 없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편에 ‘무왕’조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 왕의 신이한 출생과 등극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연은 백제에는 무강왕이 없다고까지 하면서 ‘무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목은 『고본』과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두루 접한 일연이 무왕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채록해 「기이」편에 수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갖는다. 『고려사』<sup>4)</sup>나 『세종실록』,<sup>5)</sup> 『신증동국여지승람』<sup>6)</sup> 등에 무왕의 출생담은 전하지 않은 채 세간에 전하는 왕릉 관련 설화나 사찰연기설화 부분만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고본』이나 『삼국유사』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세간에 전하는 설화만 수록한 사실은 일연과 그 수록의도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그들은 서동의 신이한 태생과 백제왕 등극에 대한 사실이 허탄하다고 믿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무왕과 왕비의 능에 관한 기사나 미륵사 창건에 관한 기사만 수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삼국유사』의 기록을 참고하였거나 무왕의 신이한 태생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를 배제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서동이 왕위에 등극하는 사실을 제외한 것은 이것을 참고하지 않고 세간에 전하는 것만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일연의 ‘무왕’조 수록 의도는 분명해진다. 그가 신라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삼국유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왕’조 역시 신라 진평왕에 역사적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백제 무왕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사육대’조목에서 백제 무왕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왕’조 기사를 별도로 백제편에 실은 것은 이 조목의 기사가 바로 마를 파는 아이의 신이한 태생과 그의 왕위

4) 『고려사』 제 57권 33 「지」 제 11, 「지리」 2 참조.

5) 『세종실록』 제 151권, 「지리지」 전라도 익산군 참조.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3권, 익산군 미륵사 참조.

등극, 즉 『삼국사기』에 수록되지 않은 무왕의 신이한 태생과 그의 백제 왕 등극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塡池에 관한 것이다. 용은 水物이므로 못이 그 생명의 원천이랄 수 있다. 그러므로 못을 메운다는 것은 곧 용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설화를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찰을 창건하기 위해 못을 메우는 일은 사찰 연기설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모티프다. 그리고 이유로 행해지는 전지는 대개 毒龍이 머물던 곳이나 용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sup>7)</sup> ‘무왕’조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의 원천인 못을 메우면서까지 창사를 하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것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35년 2월에 왕흥사가 창건되었는데 그 절은 물에 임하여 지었고, 채식으로 꾸몄으며, 장엄하고 화려했다. 왕은 매번 배를 타고 절로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sup>8)</sup>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비록 못을 메우기는 하였으나 용이 절을 왕래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그가 용자임을 가능케 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현재 미륵사 발굴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불력의 응험에 보답하기 위해 이 절을 지었음을 확인케 해준다. 그러므로 미륵사 창건에 초점을 맞춰 ‘무왕’조 기록을 단순히 불교설화 정도로 이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미륵사 창건에 관한 내용은 「탐상」편 ‘法王禁殺’조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서동이 머리를 깎는다는 점이다. 서동은 신화공주의 아름

7) 이는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자장에게 鷲棲山下 神龍池를 메우고 金剛戒壇과 伽藍을 세우라고 하자 자장이 그 못에 거처하는 九龍 중 그 터를 수호하겠다고 애걸하는 一龍을 제외한 惡毒 八龍을 내쫓고 九龍淵을 메워 통도사를 창건하였으며, 의상이 용에게 金塔峰下 毒龍湫를 시주하길 청했으나 듣지 않자 신력으로 용을 내쫓고 그 못을 메워 천축산 불영사를 창건하였다(김문태, 『三國遺事의 詩歌와 敘事文脈의 研究』, 태학사, 1995, p.102에서 재인용)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8) 三十五年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삼국사기』 권 제 27, 「백제본기」 제 5, ‘무왕’조 참조)

다음을 전해 듣고 신라의 서울로 가기 위해 머리를 깎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서동이 신라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기 위해서이다. 신라에는 불교가 전래된 법흥왕 때부터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서동이 신라 사람이라면 굳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간다(剃髮來京師)’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익산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문헌설화들은 그가 백제 사람임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리고 이와 궤를 달리 하고는 있지만 현존하고 있는 부여지방의 南池 역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준다. 이로써 볼 때 서동이 신라사람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서동은 백제 사람임이 분명하며 아울러 백제에서 신라의 서울로 옮겨간 것 또한 확실하다.

네 번째는 서동이 왕위에 등극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서동이 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화공주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신라 진평왕에게 보냄으로써 백제왕에 등극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여 왔다. 그런데 ‘무왕’조의 문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지명법사의 신통력으로 (금을)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냈다. 진평왕은 그 신비로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서동을 존경해서 늘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師以神力 一夜輸置新羅宮中 眞平王異其神變 尊敬尤甚 常馳書問安否 薯童由此得人心 卽王位).’는 기록을 볼 때 서동이 왕위에 등극하는 것은 다른데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동이 금을 하룻밤 사이에 진평왕에게 보낸 것으로 인심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왕위에 등극했다는 것보다는 ‘眞平王異其神變 尊敬尤甚 常馳書問安否’한 것으로 인하여 인심을 얻고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한결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 진평왕에게 보낸 금 때문에 서동이 백제왕이 되었다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다면 문맥상 서동은 그렇게 영웅적이지 못하다. 금을 발견한 점, 그리고 그것이 보배임에도 불구하고 선화공주의 요청에 의해 선뜻 신라의 서울로 보낸다는 점 밖에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다. 더군다나 백제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모른다면 몰라도

백제의 금을 신라로 옮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데 어떻게 백제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도리어 백제 사람들의 원성을 살 일이다.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명법사가 그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 따라서 서동이 백제왕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선화공주가 그 간의 사정을 써서 금과 함께 보낸 편지를 읽은 진평왕이 서동의 정체를 알고 그 경이로움과 영웅다움에 친히 서찰을 보내 안부를 묻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것도 적대국의 국왕이 보낸 편지이기에 민심을 얻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그러한 놀랄만한 능력을 행한 서동이기에 많은 백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동의 능력이 器量難測하였다는 기록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무왕’조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왕’조의 기록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다시피 일연은 참고 가능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삼국유사』를 찬술하고 스스로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간주로 처리하는 術而不作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무왕’조도 예외는 아니다. ‘무왕’조 조목명 밑에 ‘고본에는 무강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왕이 없다(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라고 한 것이나 말미에 ‘삼국사에는 이 분을 법왕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독녀의 아들이라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三國史云 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라고 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왕’조를 단순히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의 설화화다, 또는 순수 설화이다를 논하기 전에 일연이 이 조목을 「기이」편에 수록한 그 이유, 찬술의도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연은 어떤 의도에서 ‘무왕’조를 「기이」편에 수록했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또한 일연의 「기이」편 찬술 의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상당수 「기이」편이 그렇듯이 ‘무왕’조 역시 왕의

신이한 태생과 등극에 초점을 맞춘 기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서동의 신이한 출생, 마를 캐는 가난하고 비천한 생활, 절세 미녀 선화공주에 대한 소문을 들음, 신라의 서울로 감, 서동요를 지어 퍼뜨림, 선화공주를 얻음, 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라의 서울로 옮김, 진평왕이 더욱 존경해 친서로 안부를 물음, 그로 인해 백제의 왕이 됨, 왕비와 함께 미륵사 창건 등의 모티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 기록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점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탐상」편의 ‘법왕금살’조이다. 여기에 무왕의 신이한 탄생과 더불어 미륵사(왕흥사) 창건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 다시 한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법왕이 미륵사의 담틀(築板)만 세우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의 아들인 무왕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절을 낙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sup> 이렇게 볼 때 미륵사 창건에 대한 기록을 조목을 달리하면서까지 무왕의 신이한 출생과 더불어 「기이」편에 수록한 것은 무왕의 또 다른 역사 이야기, 김부식이 유교 사관에 의거 누락 또는 삭락한 삼국 왕들의 신이한 탄생과 왕위 등극을 일연이 민족적 자주의식의 발로에서 채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가 「기이」 서에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럽고 이상한 데서 탄생한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三國之始祖皆發乎神異 何足怪哉)’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탄생에서부터 등극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이한 행적이야말로 중국 황족에 못지 않은 역사적 영웅의 전기 그 자체인 것이다. 이점을 일연이 간과했을 리 없다. 일연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왕’조와 ‘무왕’조를 분리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미륵사 창건은 법왕과도 연관된 이야기이므로 ‘법왕’조를 「탐상」편에 수록하는 의도적인 편목 배열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목명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왕은 불교를 숭앙하여 동물의 살생을 금한 임금이다. 그런 인물이기에 미륵사 창건 사실과 함께 「탐상」편에 수록되었다고 본다. 만약 무왕이 미륵사 창건에만 관련된 왕이라면 ‘법왕금살’조 바로 밑에 ‘무왕’조를 수록했을

9) 삼국사기에 무왕 35년 왕흥사가 완공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무왕’조를 미륵사(왕흥사)연기설화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것이다. 이점은 다른 사람도 아닌 군주에 관련된 기록을 일연이 설화 일변도로 꾸며서 문헌에 올렸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삼국유사』에서 간혹 오기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나름대로 전해오는 기록의 오류를 가능한 수정하고 사적 고증을 시도한 일연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무왕’조 기록을 서동 설화부분과 미륵사 창건기록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이」편 ‘무왕’조에서 삼국사의 기록을 인용, 무왕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던 일연이 ‘법왕금살’조에서는 무왕의 출생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곧이어 미륵사 창건은 왕과 왕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에 기록한 것과는 좀 다르다. 무왕은 가난한 어머니가 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은 이다. 아명은 서동인데 즉위한 후에 시호를 무왕이라 했다. 이 절은 처음에는 왕비와 더불어 창건했다(與古記所載小異 武王是貧母與池龍通交而所生 小名薯蕷 卽位後諡號武王 初與王妃草創也)’는 기록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는 듯하다. 「왕력」편이나 「기이」편, 「탐상」편의 기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좀더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반복해서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왕’조는 무왕의 신이한 태생과 등극, 그리고 미륵사 창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전하기 위한 일연의 의도적인 찬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서동은 무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역사나 설화 상으로 누구의 기록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리라 믿는다.

## 2. 서사문맥과 노래의 친연성

<서동요>가 전래 동요나 민요 또는 참요임을 주장하는 측면은 ‘무왕’조 조목을 서동설화와 무왕의 이야기, 그리고 미륵사연기설화가 혼합되고 여기에 <서동요>가 삽입된 것으로 추단한다. 그리하여 무왕의 역사적 사실에 서동설화가 삽입되고 그것이 문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10) 박로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pp. 303-304.

<서동요>가 채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 몇 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작설이다. 이미 특정지역에 보편화되어 있는 민요나 동요에 서동이 가사만 바꿔 불렀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굽기야는 궁궐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서동요>는 서동의 작도 아니고 어느 특정 신라인의 작도 아님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일연은 그의 『삼국유사』 기술 태도로 볼 때 전래되던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불렀다고 분명히 표기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동요>를 서동이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극적이지도 못하다. 마를 캐는 아이가 지은 노래가 아이들 입을 통해 불려지고 굽기야는 궁궐에까지 이르러 공주가 그로 인해 쫓겨났다 라고 해야 훨씬 극적이다. 서동이 기량난축한 아이라는 점은 이러한 데서 발휘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본』에 수록되었고 이것이 다시 일연에 의해 채록되었으며, 다른 문헌을 통해서도 오랜 기간 전승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동요>가 개작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삼국유사』에 수록된 기사 중 믿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점 또한 의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연은 그가 참고할 만한 전적을 가능한 한 열람하고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은 직접 답사까지 하면서 찬술한 것이 바로 『삼국유사』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를 해석할 경우 그 서사기록과의 관련에서 살펴져야지 노래만을 가지고 분석할 경우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동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동요>만을 놓고 본다면 그저 한 여인의 밀애하는 장면을 노래한 정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예언이나 참요, 주술적이거나 구애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계략적이거나 선협적인 면조차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향가가 그렇듯이 <서동요> 역시 서사기록과의 친연성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서동요>가 ‘무왕’조 기사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 <서동요>가 전래되던 민요이며, 그것도 진평왕 이전부터 민간에서 널리 불리던 신라 민요라고 한다면 서동이 신라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면서까지 그들과 친해지고 그 아이들을 꺾여 <서동요>를 부르게 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연 역시 그의 『삼국유사』 저술태도로 볼 때 ‘作詞’라고 표기하지 ‘作謠’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노래인데 새롭게 그들을 쫓 필요가 있으며, 노랫말을 바꿔 불렀는데 ‘作謠’라고 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일연이 『삼국유사』에 수록한 향가의 가창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표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즉, ‘慕郎而作歌曰(慕竹旨郎歌)’, ‘作歌詞獻之(獻花歌)’, ‘奉勅歌呈之(安民歌)’, ‘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讚耆婆郎歌)’, ‘唱歌作舞而退(處容歌)’, ‘作謠(薯童謠)’, ‘作歌禱之(禱千手大悲歌)’, ‘風謠云(風謠)’, ‘嘗有歌云(願往生歌)’, ‘作兜率歌賦之(兜率歌)’, ‘作鄉歌祭之(祭亡妹歌)’, ‘天師作歌歌之(彗星歌)’, ‘忠怨而作歌(怨歌)’, ‘命□□□作歌(遇賊歌)’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표기방식은 노래의 존재 양상에 대한 일연 나름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동요>가 신라에서 전래되던 민요임이 분명하다면 그것의 표기를 <풍요>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동요>는 ‘무왕’조 전체 서사문맥 속에서 이해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전과론이다. <서동요>는 원래 서동설화와는 무관하게 전과되던 노래인데 이것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에서 추론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서로 다른 몇 개의 모티프들이 결합하여 서동설화가 형성되었다는 혼합설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무왕’조 기사를 이와 같이 몇 개의 모티프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면 그 모티프들의 선후가 문제시된다. 노래가 먼저 생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의 남녀결합담에 <서동요>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미 하나의 완벽한 서사구조를 가진 결혼담에 굳이 노래를 다시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 익산과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서동설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과 서동설화에서 <서동요>가

분리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sup>11)</sup> 이러한 주장은 수궁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무왕’조 기사가 서동설화와 무왕의 이야기, 사찰연기설화가 혼합된 것이라면 일연이 굳이 ‘법왕금살’조에서 왕과 왕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初與王妃草創也)고 부연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도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서동의 출생에서부터 왕위등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구조를 가진 이 조목의 기사를 분리하여 고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점은 ‘處容郎 望海寺’조 기록이나 ‘水路夫人’조 기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처용설화는 현강왕조에서 분리 고찰될 경우 그 존재가치가 퇴색됨은 물론 현강왕조와의 연결관계 또한 모호해진다.<sup>12)</sup> 아울러 ‘수로부인’조도 순정공의 강릉태수 부임과 관련하여 수로부인에게 일어나는 순차적인 사건담으로 보아야 문맥이 자연스럽다.<sup>13)</sup> 이러한 점은 『삼국유사』 「기이」편의 일화 중에서 단순한 사실담을 열거한 것이 몇 편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기이」 제 2의 이야기들은 ‘孝昭王代 竹旨郎’조와 ‘수로부인’조 그리고 ‘眞聖女大王 居陀知’조만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왕을 중심으로 한 신이담이나 사건담으로 짜여져 있다. 이 중에서도 ‘거타지’설화와 ‘죽지랑’설화는 왕의 시호를 조목의 포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왕이나 시호와 전혀 무관하게 독립된 조목으로 기술된 설화는 ‘수로부인’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조목명이 그 조목 서사물의 내용을 압축 포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왕’조 역시 무왕과 관련된 기사임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서동요> 역시 ‘무왕’조와 불가분의 관계로 짜여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11) 강혜선, 『求愛의 民謠로 본 <서동요>』,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p. 40.

12) 이완형, 「處容郎 望海寺」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語文學』 68, 1999, 참조.

13) 이완형, 「水路夫人」조 가요연구, 『韓國言語文學』, 제 32집, 1994, 참조.

### Ⅲ. 서동요의 생성기반과 노래의 기능

#### 1. 가창상황과 노래의 성격

<서동요>는 어떤 성격의 노래인가. 지금까지 서동요를 바라보는 입장은 '무왕'조 기록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론이 거론되었다. 그리하여 전래 동요에서 주술적인 노래, 참요, 나아가 마노래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전해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 중에서 <서동요>가 전래 동요임을 주장하는 측면은 얼레플레형 동요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얼레플레형 동요가 <서동요>보다 앞선 시대부터 불렀다는 실증적인 기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동요가 <서동요>보다 먼저 불렀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무왕'조 기사에 분명히 '作謠'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래 불렀던 가사를 기록한 『海東樂府』<sup>14)</sup> 역시 '作謠'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은 그것이 서동의 노래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동악부』는 한국의 역사적 내용을 시화한 것으로<sup>15)</sup> 기존의 악부와는 다르다. 특히 이복휴의 『해동악부』는 그러한 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과 가사 그리고 찬자의 사론으로 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통사를 음악화한 장편 서사시로서 역사적 내용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러므로 얼레플레형 동요의 생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에 빗대 <서동요>를 거론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하겠다.<sup>17)</sup>

반면에 무가로 보는 측면은 <서동요>가 장차 일어날 선형적 모방이

14) 李福休, 『海東樂府』, 『海東樂府集成』, 여강출판사, 1988, p. 322, 참조.

15) 《海東樂府集成》 해제, 위의 책, p. 1.

16) 《海東樂府集成》 해제, 위의 책, p. 8.

17)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로준, 앞의 책, pp. 292-294.

최용수, 앞의 논문, 1995.

며, 여기에는 주술적인 詭計가 담겨 있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sup>18)</sup> 그런데 <서동요>가 주술적인 노래라고 한다면 구지가나 해가사처럼 위협적인 내용을 가지던가 아니면 처용가처럼 그것이 주술적이게 한 동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동요>에는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서동요>가 주가라고 한다면 선화공주를 원방에 유배시키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주가를 부르거나 주술을 행했을 것이다.<sup>19)</sup> 잘 알다시피 진평왕은 비형랑과 같은 귀신 잡는 아이나 길달 같은 귀신을 집사로 활용할 정도의 안목을 가진 왕이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서동요>가 한갓 주술적인 노래였다면 진평왕은 오히려 그 진원지를 찾아 발본색원했을 것이다. 또는 궐내의 일관을 시켜 속히 그것을 해결했을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서동요>는 주가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서동요>를 참요나 예언적 동요로 보는 입장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다. <서동요>가 예언적 동요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이나 신비한 영감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와 장소가 필연적으로 따라붙어야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확언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동요>는 노래 불려진 가창 상황이나 그 노랫말 어디에도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서동이 예측한 대로 되었지만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지 필연적인

18) 이러한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김병욱, 『서동요고』, 『백제문화』 7, 충남대 백제연구소, 1976.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박로준, 앞의 책.

엄국현, 『서동요 II』, 『인제논총』 제 6권 제 2호, 인제대학교, 1990.

19)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학사, 1997, p. 14.

20) 『삼국유사』 권 제 1, 「기이」 제 2, 『桃花女鼻荊郎』조 참조.

21) 신라시대의 일관은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이들은 왕의 안위는 물론 국가의 존망까지도 예견·예방하는 신통력을 발휘한다(『延鳥郎細鳥女』, 『射琴匣』, 『處容郎望海寺』, 『栢栗寺』, 『月明師兜率歌』조 참조).

귀결은 아니다. 그것이 예언적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서동이라는 아이가 선화공주를 아내로 얻을 것이다.'라는 말이 수반되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대로 적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동요>는 예언적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강한 염원이 담긴 노래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참요도 마찬가지다. 참요는 讖緯說의 영향에서 나온 것으로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앞일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는 뜻으로 지어 부르는 노래로<sup>22)</sup> 대부분 어떤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거나<sup>23)</sup> 사회의 변혁이 예상될 때 그 결과를 예언하는 것으로<sup>24)</sup> 되어 있다. 신라(계림)의 멸망과 고려(곡령)의 건국을 미리 예견한 '계림은 누른 잎이요, 곡령은 푸른 소나무(鷄林黃葉 鶻嶺靑松)'로 불려진 <鷄林謠>나 정도전과 남은이 죽을 것을 예견한 '저 남산에 가 돌을 깨니 정이 남음이 없네'로 불려진 <南山謠>, 그리고 숙종 때 유행하던 민비의 복원과 장희빈의 망실을 예견한 '장다리는 한 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다'의 <미나리요>, 또 동학혁명 때 전봉준의 실패를 예견한 '아랫녘 새야 옷녘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두류박 딱딱 우여'의 <녹두새요> 등이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래들은 한결 같이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변혁으로 인하여 흥망의 시비를 예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동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동요>는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변혁에 따른 징후를 예견하는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이나 무고에 해당한다. 서동이 거짓으로 노래를 만들어 선화공주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참요와 통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그 어느 곳에도 참요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요가 대개 봉건 왕조에서 민심을 알고 정치적인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이를 수집·기록하고 해석했다는<sup>25)</sup> 점은 그것이 <서동요>와 구분되는 성격의 동요임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그럼에

22) 국어국문학회편위원회 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p. 2821.

23)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p. 4027.

24) 윤영옥, 『<薯童謠>』, 김승찬 편저, 『鄉歌文學論』, 새문사, 1986, p. 150.

25) 서울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6, p. 610.

도 불구하고 <서동요>의 ‘夕日乙’ 부분에 초점을 맞춰 참요가 대체로 동음이의어, 은유, 파자 등을 사용하기에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순수한 동요와는 거리가 멀다는<sup>26)</sup> 속성에 의거 ‘夕日’자를 ‘알’로 해석하고 이는 은유 내지 비유적 표현이므로 <서동요>는 참요라고 주장하는 것은<sup>27)</sup> 다소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서동요>의 의미를 원효가 파계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에 빗대 아무도 그 노래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sup>28)</sup> 역시 혼란을 가중시킨다. <서동요>의 내용을 몰랐다면 어떻게 선화공주가 쫓겨났단 말인가. 그리고 ‘무왕’조 문면 어디에도 <서동요>의 내용을 몰랐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일연이 자주 쓰는 ‘不知’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서동요>의 의미를 몰랐다면 그렇게 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볼 때 <서동요>는 참요와 거리가 있는 노래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리고 <서동요>를 구애가로 보는 견해<sup>29)</sup> 역시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 만약 <서동요>를 구애가로 볼 경우 왜 하필 구애의 노래에 조롱섞인 또는 무고하는 내용을 그 주제로 했을까 하는 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동요>로 말미암아 중국에는 서동과 선화가 맺어졌으므로 구애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의도를 보면 전혀 구애의 노래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략으로 진행되는 고도의 술책이 짙게 깔려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동요>를 로맨틱한 노래라고<sup>30)</sup> 보기에 애매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서동요>를 마노래라고<sup>31)</sup> 하기에 애매한 문제가 남는다. <서

26) 위의 책, p. 610.

27) 김문태, 『三國遺事의 詩歌와 敘事文脈의 研究』, 태학사, 1995, p. 110.

28) 김문태, 위의 책, pp. 110-111.

29) 이러한 견해에 속하는 논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선, 『新羅鄉歌의 性格』, 『古典文學를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82.

강혜선, 앞의 논문.

30) 박로준, 앞의 책, p. 289.

31) 엄국현, 앞의 논문.



동요>를 마노래로 보는 입장은 ‘夕日乙’을 ‘卯乙’로 판독하여 여성을 상징하는 ‘도깨그릇’으로 해석하고 ‘甕’ 즉, ‘마’를 남성 상징으로 은유하여 <서동요>는 음란가의 일종이며, 풍요를 기원하는 노래로 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이 노래는 원래 주술적인 제의요였는데 그것이 서동전승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마노래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sup>32)</sup> 그러한 근거로서 ‘公主’라는 명칭은 무속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공주가 도깨그릇을 안고 간다는 것은 곧 고대의 사체가 제의를 주관하는 것을 연상케 하므로 여기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전래되던 제의요에 서동이 가사만 바뀌 부른 것이 되는데 하필이면 동요에 제의요를 끌어다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따른다. 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도 없어 동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그리고 ‘夕日’자는 ‘卯’ 뿐만 아니라 ‘卯’자로도 해독되며, 나아가 ‘누워 뒹굴 원’자로도 판독이 가능한데<sup>33)</sup> 굳이 문맥에서 한층 벗어나는 ‘도깨그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이렇게 볼 경우 (룻기)토끼가 언제 ‘똥’으로 축약되었는가 하는 점과 ‘도깨’를 ‘土器’와 같은 의미로 보면 서도 그 ‘토기’를 피한 점, 그리고 ‘룻기’를 ‘도깨’와 유사한 것으로 지나치게 유추한 점 등이 문제로 도출된다.<sup>34)</sup> 아울러 ‘公主’라는 명칭 역시 신라시대에도 많이 쓰이던 용어였는데<sup>35)</sup> 이것을 무속신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서동 설화와 결합하게 된 연유 또한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드러난 점들을 고려할 때 <서동요>에 대한 시각은 다른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 2. 계략적 希願謠

<서동요>는 ‘무왕’조 서시문맥과의 친연성이나 그 성격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전략적인 계략요요, 술책요라고 할 수 있다. 그

32) 임국헌, 앞의 논문, pp. 359-365.

33)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심재기, 『蕃童謠 解讀 挿疑-“夕日乙” 풀이를 중심으로-』, 『二靜鄭然榮先生回甲紀念論叢』, 탐출판사, 1989와 윤철중, 『蕃童謠의 新考察』,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반교어문학회 편, 1998 참조.

34) 양희철, 앞의 책, pp. 51-52, 참조.

35) 임기중, 앞의 논문, p. 14.

것은 온달전설처럼 왕에 의해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 백제에서 마를 캐는 미천한 아이, 서동이 공주를 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무고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와는 또 다른, 노래에 담긴 내용이 실현되길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 있다. 호동왕자가 의도적으로 낙랑공주에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동과 같지만 그것은 엄연히 왕족과 왕족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해지며, 정식 결합을 통해 실현된다.<sup>36)</sup> 그러나 서동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그는 국가간의 거리와 신분 차를 극복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도의 체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서동은 이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는 신라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신라의 서울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마를 나눠주며 사귀 후 그 아이들에게 <서동요>를 부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것은 절묘하게도 선화공주를 불러내는데 성공하고 결국 서동과 잠통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상당한 위협을 수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는 서동은 자신을 감춘다. 자신은 숨긴 채 아이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자신을 드러냈다가는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의도하는 바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요>는 참요나 민요, 주가나 구애가, 또는 마노래가 아닌 希願謠라고 해야 한다. 그것도 계약적으로 지은 노래임이 분명하다. 이는 이 노래를 동요라고 하고, 서동이 작유했다고 하는 일련의 진술에서 입증된다.

불가능하고 위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체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그것이 적대국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서동은 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짧은 노래 한 수를 짓는다. 복잡하거나 길고, 지나치

36) 『삼국사기』 제 14권, 「고구려 본기」 제 2, ‘大武神王’조 참조.

게 비유적이면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유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유포되지 않으면 궁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설혹 궁궐에 이른다 하더라도 궁궐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동요>는 서동의 강한 집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의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 융화된 노래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노래는 놀랍게도 그 실효를 거둔다. 그리고 급기야는 백제왕에 등극하는 성과로 나타난다. 그로 인하여 이 노래는 ‘무왕’조 기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서동요>가 너무 짧은 형태의 노래이다 보니 그 해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이 노래 해석의 주안점은 단연 ‘夕’자에 집중된다. 이것을 어떻게 판독·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夕’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卯’자와 ‘卵’자, 그리고 ‘宛’자 세 가지 측면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들도 그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반론이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어학적 해독을 토대로 그 문학적 해석과 작품 속에 내재된 분위기만을 고려해 보려고 한다.

먼저 <서동요>가 풍기는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중적인 성격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sup>37)</sup> 그것이 동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일단 부르기가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한다. 그래야만 그 노래를 유포시킨 서동이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서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는 별도의 의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아이들은 그 노래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노래를 들은 궁궐의 백관들은 이 노래의 내용을 쉽게 간파해야

37) 이에 대해 양희철 교수는 텍스트의 표면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군동을 유인하여 속이는데 사용된 텍스트들과 백관들을 기만하는 데에 사용된 텍스트들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 본다. 다만 군동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또래 아이를 숨겨 놓고 그 아이에게 줄 알(卵)이나 밤(栗)알을 안고 가는’ 것으로 본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밤에 알이나 밤알을 안고 간다는 것으로는 백관들이 궁주의 축출을 극간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앞의 책, pp. 54-62 참조).

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관까지도 속이는 그런 내용의 노래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무고와 기만, 그리고 바람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 서동은 그러한 무고와 기만,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군동과 백관, 왕과 왕비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은 동요를 지은 것이다. 동요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벌일 수 없다. 그것이 만약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면 궁궐에서는 그 근원지를 찾으려 했을 것이고, 어른들의 의식 차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궁궐에까지 전달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서동은 그 기탕난측한 꾀로 아이들을 꾀여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은 곧바로 궁궐의 대신들과 일관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서동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그 무구하고 천진한 동심을 빌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념, 그 바람이 스며있는 것이 바로 <서동요>인 것이다. <서동요> 그것은 곧 회원요, 서동의 간절한 염원이 체계로까지 나타나는 회원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V. 결 론

지금까지 일연의 ‘무왕’조 찬술의도에 초점을 맞춰 <서동요>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연이 「기이」편에 ‘무왕’조를 수록한 것은 무왕의 또 다른 역사 이야기, 김부식이 유교 사관에 의거 누락 또는 삭락한 삼국 왕들의 신이한 탄생과 왕위 등극을 민족적 자주의식의 발로에서 채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탄생에서부터 등극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이한 행적이야말로 중국 황족에 못지 않은 역사적 영웅의 전기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일연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왕’조와 ‘무왕’조를 분리 수록하는 의도적인 편목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동은 무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삼국사기』의 왕홍사 창건에 대한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서동이 못을 메우기는 하였으나 용이 절을 왕래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그가 용자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륵사 발굴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불력의 응험에 보답하기 위해 이 절을 지었음에서도 드러난다. 아울러 서동은 백제 사람임이 분명하다. 서동이 신라의 서울로 가기 위해 머리를 깎는 것은 신라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만약 신라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서동이 왕위에 등극하는 문제 또한 진평왕이 서동의 정체를 알고 그 경이로움과 영웅다움에 친히 서찰을 보내 안부를 묻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도 적대국의 왕이 보낸 편지이기에 민심을 얻어 등극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왕’조의 실체는 일연이 이 조목을 「기이」편에 수록한 찬술의도에서 찾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서동요(薯童謠)>가 ‘무왕’조 기사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으며, 극적 구조 또한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동요>를 보는 관점은 전래 동요, 주가, 참요나 예언적 동요, 구애가, 마노래 등이었다. 먼저 전래 동요를 보는 측면은 ‘엘레플레’형 동요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동요가 <서동요>보다 앞선 시대부터 불렀다는 실증적인 기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무왕’조 기사나 『海東樂府』에 분명히 ‘作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것이 서동의 노래임을 입증하는 바라 하겠다. 한편 주가로 볼 경우 이 역시 구지가나 해가사처럼 위협적인 내용을 가지던가 아니면 처용가처럼 그것이 주술적이게 한 동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동요>가 주가라고 한다면 비형량이나 길달 같은 귀신을 부릴 줄 아는 진평왕의 능력을 볼 때 선화공주를 유배시키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주가를 부르거나 주술을 행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동요>가 참요나 예언적 동요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변혁에 따른 징후를 예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동요>는 가창 상황이나 그 노랫말 어디에도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참요의 경우 대개 봉건 왕조에서 민심을 알고 정치적인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이를 수집·기록하

고 해석했다는 점은 그것이 <서동요>와 구분되는 성격의 동요임을 시사하는 바다. 아울러 <서동요>를 구애가나 로맨틱한 노래로 보는 견해 역시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 만약 <서동요>를 구애가로 볼 경우 왜 하필 구애의 노래에 조롱 섞인 또는 무고하는 내용을 그 주제로 했을까 하는 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서동요>를 마노래라고 하기에다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서동요>를 마노래로 보는 입장은 <서동요>가 음란가의 일종이며,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요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동요에 제의요를 끌어다 붙였을까 하는 점, 그럴 경우 동요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 그리고 서동 설화와 결합하게 된 연유 또한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따라서 <서동요>는 하나의 전략적인 제략요요, 술책요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적대국의 왕과 대신들을 속이기 위한 서동의 강한 집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의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 융화된 노래임이 틀림없다. 무고와 기만, 그리고 바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아이들의 무구하고도 천진한 동심에 담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념, 그 바램이 스며있는 것이 바로 <서동요>인 것이다. <서동요> 그것은 곧 회원요, 그것도 서동의 간절한 염원이 제계로 까지 나타나는 회원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삼국유사, 기이, 무왕, 진평왕, 향가, 서동, 서동요, 회원요, 미륵사, 왕홍사

## 참고문헌

###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악부집성』, 여강출판사, 1988.

『국어국문학사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신구문화사, 1986.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편, 어문각, 1991.

『국어국문학자료사전』, 국어국문학회 편, 한국사전연구소, 1997.

<논문>

강혜선, 「구애의 노래로 본 <서동요>」,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산문맥의 연구』, 태학사, 1995.

김병욱, 「서동요고」, 『백제문화』 7, 충남대 백제연구소, 1976.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박로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심재기, 「蕃童謠 解讀 挿疑-“夕日乙” 풀이를 중심으로-」, 『二靜鄭然榮先生回甲 紀念論叢』, 탐출판사, 1989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학사, 1997.

엄국현, 「서동요 II」, 『인제논총』 제 6권 제 2호, 인제대학교, 1990.

윤경수, 『향가·여요의 현대성 연구』, 집문당, 1993.

윤영옥, 「<蕃童謠>」, 김승찬 편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윤철중, 「서동요의 신고찰」,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반교어문학회, 1998.

이완형, 「처용랑 망해사'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어문학』 68, 1999.

\_\_\_\_\_, 「'수로부인'조 가요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32집, 1994.

이재선, 「신라향가의 성격」,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82.

임기중,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최래욱, 「蕃童의 正體」, 『韓國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1986.

최용수,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말』 20, 1995.

이 논문은 2001년 8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1년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1년 10월 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Intention to Edit Documents and Characteristics of Seodongyo in 'King Mu' Times

Lee, Wan-hyung

### [Abstract]

When Il Yeon(一然) wrote down about 'King Mu(武王)' times in the section of 'Gi-i(紀異)', he did so from the nationalistic spirit of independence. He recorded kings' holy nativit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ir enthronements which were omitted and struck off by Kim Bu-sik(金富弼) with Confucian ideas. From Seodong(薯童)'s birth till his enthronement, his extraordinary life-time achievements can be said as a hero's biography itself no less than those of the Imperial family in China. Il Yeon arranged and separated recordings of 'King Beop(法王)' times and 'King Mu' times intentionally. In this sense, it is said that Seodong refers to King Mu. In addition, he must have been from Baekje. It was recorded that Seodong had his hair cut to go to Silla, and this was for disguising himself as if he had been from Silla. If he had been from Silla, there would have been no phases like that in the recording. When it comes to Seodong's enthronement, King Jinpyeong(眞平王) knew who Seodong was and said hello to him through a letter praising his wonderful heroness. And that, Seodong must have been nice enough to ascend to the throne in that the letter was from a hostile country. Therefore, reality of 'King Mu' times should be found from Il Yeon's intention to edit this part in 'Gi-i'. It makes <Seodongyo(薯童謠)> the essential contents of recordings in 'King Mu' times. <Seodongyo> also has a dramatic plot.

In this sense, the viewpoint of <Seodongyo> should be changed. Until now, <Seodongyo> has been seen as handing-down children's song, wishing song, Chamyo(讖謠) or prophetic song, wooing song, and Manorae. However, those viewpoints have some problems. We should see <Seodongyo> as strategic song and trick song. It must be a song that



unify Seodong's strong will to deceive a king and subjects of the hostile country, his tenacious devotion to face a death, and his strategy to realize his dreams. It is in <Seodongyo> that Seodong fulfills his goals through carrying double the meanings of false accusation, deception, and hope in children's innocent minds.